

2004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추진 및 지원대상 선정

한

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들이 정성껏 작성하여 신청하신 문화예술사업 하나 하나가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소중한 밑거름이 됨을 잘 알고 있기에,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로 지원대상사업을 선정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제한된 예산 사정 때문에 신청하신 사업을 모두 지원해 드리지 못하게 됨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히 문예진흥기금이 2004. 1. 1자로 폐지됨에 따라, 그간 이를 대체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해 왔는데, 대체 재원 마련이 늦다보니 부득이 2004년도 지원 예산은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되어, 지원예산 규모나 지원방식에 있어 큰 변화를 갖기가 어려웠으며, 예년도 수준에 준해 추진케 되어 아쉬움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2003. 12월말에 『복권 및 복권기금법』이 새로 제정되어, 2004년도 하반기부터는 로또 수익금 중 일부를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활용이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그간 문화예술계에서 간절히 염원해 왔던 많은 사업들이 현실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어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인들의 많은 참여와 동의 속에 문예진흥사업들이 꾸려져 갈 수 있도록 더 한층 노력해 나가겠으며,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체제 및 지원방식에 있어서도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가도록 열과 성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원심의에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인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2004년도의 지원신청서는 모두 3,539건이었습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지난 2003년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 간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지원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 그 결과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전통예술·다원예술·문화일반 등 총 8개 분야에 3,539건 (신청액 649억 5천만원)의 사업이 신청되었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는 이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지원심의위원회 구성은 우리 원이 보유하고 있는 1,200여명의 심의위원 뱅크를 토대로 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단체의 대표자 등 신청사업과 직접적인 이해 관계에 있는 인사의 배제와 경향별 형평을 유지한다는 기본적인 원칙아래 후보를 선정함과 더불어 금년도에 처음으로 지원심의위원 인터넷 추천방식을 도입하여 참신한 인사 발탁의 기회를 마련하였으며, 이러한 모든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8개 분야 14개 『지원심의위원회』 심의위원 116명을 확정하였습니다. 이는 전년도 83명에 비하여 심의위원이 대폭 증원되어 심의의 충실성을 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터넷 추천방식은 연간 상시 운영하여 인재 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금년도 지원심의위원회는 이렇게 개선하였습니다

2004년도 지원심의위원회는 매년 늘어나는 신청건수로 인하여(2003년도 대비 25% 증가) 심의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8개 분야 중에 특히 장르별 심층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6개 분야에 대해서는 “예술창작중심분야”와 “문화향수중심분야”로 이원화하여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년도 8개 분과별 위원회로 구성 심의하던 것을 14개 위원회로 세분화하여 심의를 하였으며,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의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뷰 심사를 도입하여 서류 심사 위주에서 오는 형식성을 보강하여 더욱 심도 있는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년도 지원심의위원회는 이렇게 추진되었습니다

2004년도 문예진흥기금사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심의는 다음과 같은 4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제1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2003.12.8)

- 8개 분야별 지원심의위원회를 각각 대표하는 8명으로 구성된 『기금지원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2004년도 사업계획(예산)과 심의 절차 등에 대한 우리 원 보고를 토대로, 지원유형별 지원 등급과 단가 등 심의기본방침을 정하였습니다.
- 2004년도 공통심의기준과 주요 고려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통 심의기준

- 1) 사업 내용의 예술(문화)적 수월성(秀越性/뛰어남)
- 2)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 3)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 4)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 주요고려사항

- 1) 사업 특성에 따라 집중지원의 지속 확대 및 보급확산형 소재지원의 병행
- 2) 지원사업 심사평가 결과의 최대한 반영 및 전국 규모행사의 심층평가 확대
- 3) 동일 조건 다수 혜택 신청사업 우선 선정
- 4) 사업비 지원 및 소요경비 일부 지원

: 제1차 분야별지원심의회(2003.12.10~12.16)

- 『분야별지원심의회』 제1차 회의에서는 먼저 분야별 세부 심의방침을 정하고 각 지원신청사업에 대한 개별 검토와 토론을 거친 후 위원 각자가 독립적으로 채점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문예진흥기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지원 혜택을 받으신 실적이 있는 단체(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수행 평가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 제2차 분야별지원심의회(2003.12.18~12.24)

- 『분야별지원심의회』 제2차 회의에서는 분야별 1차 회의시의 채점 집계 결과를 토대로한 지원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우리 원 예산 범위 내에서 적정 지원예정액을 책정하였습니다.
- 채점 집계시 위원간 편차를 줄이고자 평균점에서 위, 아래로 40%를 벗어난 점수는 제외하였고, 또한 신청사업의 해당 목표(4대 목표 : 예술 창조 역량 강화/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문화예술교류 활성화/예술의 보존과 계승)별 공통심의기준의 가중치를 달리 하였습니다.
- 공통심의기준의 가중치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공통심의기준

		사업예술 (문화)의 수월성	사업계획의 총실성과 타당성	해당 분야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계
지 원 목 표	① 예술 창조 역량 강화	40	20	20	20	100
	②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20	20	40	20	100
	③ 문화예술교류 활성화	20	20	40	20	100
	④ 예술의 보존과 계승	30	20	30	20	100

가중치 부여의 원칙

4개 공통심의기준 항목 중 모든 신청사업에 균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업 계획의 총실성과 타당성' 과 '신청인(단체)의 사업 추진 능력' 항목에는 각각 기본 20점씩을 부여하고, '사업 내용의 예술성' 과 해당 분야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항목에는 지원목표를 감안하여 20점에서 40점까지 10점 간격으로 부여하였습니다.

제2차 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2003.12.30)

- 『기금지원심의회』 제2차 회의에서는『분야별지원심의회』 제2차 회의에서 책정된 지원대상 우선순위와 지원예정액을 토대로 종합심의를 거친 후, 문예진흥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 대상과 금액을 확정하였습니다.
- 신청사업 중 선정된 지원 대상은 1,059건에 113억 1백 만 원으로서, 신청건수(3,539 건)대비 지원 선정률은 29.9%로 전년도 35.7%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전년도 선정 건수(1,009건)에 비해서는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문예진흥사업의 집중지원 방침에 따른 영향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예산이 한정되어 있음을 감안, 좀 더 많은 신청단체들에게 폭넓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단체 및 개인별 최대 지원선정이 가능한 지원건수 상한제를 적용하였습니다

- 사업 유형별로 동일한 단체(개인)에 대해서는 1개 사업만 선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 단, 사업유형이 미분화된 “전통예술발표 및 전승보급지원”은 2개 사업까지 선정 가능
- 전체 문예진흥기금 사업 내에서는 단체(협회 포함)의 경우 최대 5개 사업까지, 개인의 경우는 최대 2개 사업까지로 제한하였습니다

기금 및 8개 분야별 심의위원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금지원심의위원(8명) : 오생근(위원장), 손장섭, 황익중, 허영한, 김경애, 손철주, 임정희, 최준호
- 분야별 지원심의위원 (14개 분야 총 116명)

문학A 분야(12명)	김원일(위원장), 황지우, 김사인, 문정희, 홍성란, 서영은, 송기원, 윤조병, 신현득, 조대현, 오생근, 장윤익
문학B 분야(6명)	황현산(위원장), 이문재, 최인석, 이강렬, 원종찬, 정목일
미술A 분야(12명)	최민(위원장), 김호석, 손장섭, 최태만, 최광호, 김수천, 홍순명, 최공호, 김원, 장석원, 정현이, 박신의
미술B 분야(10명)	민정기(위원장), 문봉선, 신현중, 배병우, 이동익, 홍현숙, 강관식, 조건영, 강성원, 정용도
음악A 분야(7명)	곽진용(위원장), 김용환, 이승열, 임지선, 김혜선, 허영한, 김봉
음악B 분야(7명)	구본우(위원장), 허영한, 이영민, 이장직, 허원숙, 최승태, 이종기
무용A 분야(7명)	김태원(위원장), 손경순, 김현자, 김현숙, 김기인, 백의선, 김경애
무용B 분야(7명)	배정해(위원장), 한상근, 정옥조, 김주자, 김경희, 김경애, 문애령
연극A 분야(7명)	강영걸(위원장), 이강백, 최준호, 김승현, 김아라, 윤정섭, 강태기
연극B 분야(7명)	이반(위원장), 최준호, 안치운, 박계배, 이병훈, 이태섭, 박상규
전통예술A 분야(7명)	한상일(위원장), 전보삼, 임재원, 임미선, 최 현, 김현숙, 현경채
전통예술B 분야(7명)	이준희(위원장), 황익중, 윤덕경, 주강현, 강등학, 정형호, 장경희
다원예술분야(10명)	임정희(위원장), 심철웅, 정재알, 송애경, 김창남, 민경찬, 주홍미, 안이영노, 정현욱, 전효관
문화일반분야(10명)	박천(위원장), 이경철, 최원식, 박정진, 하계훈, 정갑영, 이혜경, 홍승찬, 신동호, 손철주